

“정치력 신장해야 목소리 커진다” ... 한인 당선 위해 힘 모아야



11월 8일은 중간선거일이다. 남가주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많은 한인들이 당선돼 한인 정치력이 신장하면 한인들의 입지도 그만큼 커지고 단단해진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인들의 당선을 위해 모든 한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방하원



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40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40지구는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선거자금도 상대 후보보다 월등히 많이 모금돼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파키스탄계 의사 아시프 마무드(민주) 후보와 겨룬다.



미셸 스틸(공화)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45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이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고 분석돼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계 후보인 제이 첸(민주) 후보와 일전을 치룬다. 이전에 치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선거와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이번에도 그 기록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데이비드 김(민주)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34지구에서 연방의회 입성을 노린다. 김 후보는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년 전 그에게 패배를 안겼던 현역 지미 고메즈(민주) 의원에게 설욕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주하원



최석호(공화)
캘리포니아주 하원 73지구에서 4선을 노린다. 하지만 상대 후보인 코티 페트라-노리스(민주)에게 후원금에서 크게 밀려 고전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중도와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유수연(공화)
현 ABC교육구 교육위원장이자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위와 큰 표차이로 2위에 올라 본선에 진출한 유수연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67지구에서 첫 주의회 입성을 도모한다. 상대 후보는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현역 세련 퀴크-실바(민주) 의원이다. 관목의 세련 퀴크-실바 의원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OC)수퍼바이저



씨니 박
현 부에나파크 시장인 씨니 박 후보는 OC 4지구에서 OC수퍼바이저에 도전한다. 상대 후보는 현역인 덕 채피 수퍼바이저이다. 박 후보는 예선에서 1위에 올랐으나 3위로 본선 진출이 좌절된 스티브 바르가스 후보가 덕 채피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예측할 수 없는 전세로 재편됐다.

부에나파크 시의원

조이스 안, 케빈 이, 한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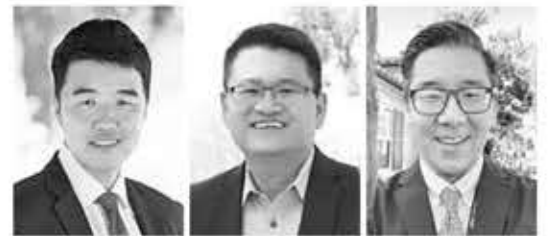


▲ 왼쪽부터 조이스 안, 케빈 이, 한명수 후보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시 문화예술위원회 커미셔너와 케빈 이 OC북부한인회장이 한인 밀집 지역인 1 지구에 동시 출마해 자웅을 겨룬다.

한명수 OC한인축제재단 부회장은 라틴계가 과반을 차지하는 2 지구에 출마해 이번 연출을 도모하고 있다.

어바인 시장, 시의원



▲ 왼쪽부터 사이먼 문, 존 박, 제프 김 후보

사이먼 문
어바인 은누리교회 사이먼 문 목사는 어바인 시장 선거에 출마해 파라 칸 현 시장 등과 자웅을 겨룬다

존 박
어바인시 재정위원장인 존 박 후보는 시의원에 도전한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제프 김
어바인통합교육구 4지구 교육위원회 출로 입후보했다.

이외에도 북가주 캘리포니아주 상원 2 지구에는 진운 후보가, LA 카운티 수퍼리어법원 판사에는 캐롤린 박 후보가 출마해 승리를 위해 싸운다. 또, 샌드라 이 사이프리스교육구 교육위원장은 C 지구에서 3선에 도전한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499	\$274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719	\$2,309
Asset Limit	\$15,510	\$30,95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